



까치 밥



李興周

(環境廳公報官)

“그것이 까치밥이여, 매년 감을 딸때면 내가 감을 따는 일꾼들에게 당부하지. 새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먹어야 살지아녀?”

우리의 선조들은 까치의 밥까지 걱정하며 自然속에서 共存하는 지혜를 배웠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그 선조들의 지혜가 한없이 아쉽다. 그러기에 까치밥의 지혜는 環境파괴에 대한 차분한 경고일 듯 싶다.

I

어릴적 친구 K군의 故郷에 놀러 갔을적 記憶이다.

K군의 故郷은 忠北 沃川의 어느 산골인데 감이 많이 나기로 有名한 속칭 “감골”이란 마을이었다.

K군을 따라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때, 그때는 감나무에서 감을 모두 따낸 늦가을이었는데 감나무마다 붉은 감들이 적게는 한줄에서 많게는 예닐곱개까지 매달려 있었다.

K군에 집에 도착해서 시원한 뒷마루에서 연로하신 K군의 할아버님, 할머니를 모시고 이야기저 얘기를 나누던중 감을 남겨놓은 연유를 여쭙었더니 K군의 할아버님께서 인자한 웃음과 함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까치밥이여, 매년 감을 딸 때면 내가 감을 따는 일꾼들에게 당부부 하지. 새들도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먹어야 살지아녀?”

감골을 떠날 때 잎마저 떨어져 앙상하게 남은 늦가을 감나무에 맑은 하늘과 어울려 남은 감(까치밥) 들은 보기좋고 아름답다는 생각이외는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나 내가 環境業務를 擔當하게 된 후로는 이따금씩 까치밥의 意味가 신선한 충격으로 되새겨지곤 한다.

II

감을 따다는 것은 보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情景이다.

땀흘려 가꾼 나무에서 수확을 한다는 즐거움, 그것은 땀흘려 가꾼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즐거움일 것이다.

그러나 감을 따는 작업은 대단히 어려운 作業이다.

농사일이 몸에 밴 분들도 이삼일동안 감을 따

고 나면 허리를 비롯 각종 몸의 마디마디가 아프다고 한다.

그처럼 어려운 作業중에서도 가치를 생각하던 農者의 마음, 그 餘裕가 불현듯 신선한 충격으로 되돌아켜지곤 하는 것이다.

“가치밥의 意味”

그것이 비록 조그마한 行爲일지라도 우리 조상님들의 삶의 餘裕와 自然의 섭리를 이해하고 가꾸던 脈이 언연히 이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찬서리를 맞고 서있는 헐벗은 裸木, 그것은 얼마나 쓸쓸하고 을씨년스러운 풍경일까?

그러나 그 나무에 서너개의 붉은 감이 매달려 까치가 날아와 반갑게 울어(?) 주는 그런 풍경은 얼마나 정취가 흐르는 情景이겠는가?

가치밥은 “先行의 씨앗”이다.

사랑은 또다른 사랑을 낳고 선행은 또다른 선행을 불러일으켜 연쇄적으로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한다.

農者가 뿌린 가치밥이란 先行의 씨앗이 自然의 질서를 지키고 環境을 保全하는 그런 씨앗으로 남을 것이다.

Ⅲ

工業化의 產物은 우리에게 풍부한 物質文明의 惠澤을 가져다 주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일상生活로 부터의 餘裕를 앗아갔다.

生活패턴의 스피드化는 많은 長點과 아울러 많은 시행착오도 가져왔다.

한번 더 생각하는 여유.

맑고 푸른 청자빛 가을하늘에 감을 그려놓은 先人들의 餘裕를 스피드化와 더불어 함께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급속한 產業化, 急激한 產業施設의 增加에 따르는 주변의 環境을 돌보고 가꾸는 우리마음의 여유를 함께 늘려야 할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따버린 감나무에 가치를 위해 다시 감을 매달아 놓는다치자.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가치밥의 구실은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環境도 마찬가지로이다.

한번 파괴되고 나면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몇 배, 몇 십배의 노력이 들지마는 復元이 可能할 지도 모른다.

감을 따기전에 가치밥을 남겨놓던 先人들의 그 餘裕가 사라져가는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Ⅳ

늦가을

아무것도 남지않은 빈 裸木에서 까악까악 울어대는 까치의 울음소리는 사라져가는 人間性 回復과 황폐화되어가는 環境에 대한 경고가 아닐런지.

K군의 할아버님,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自然을 지키고 사랑한, 그리고 先行의 씨앗을 뿌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人間이 人間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은 채 사는 方法이 環境을 지키고 가꾸는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분들이 뿌린 先行의 씨앗 - 가치밥 같이 소중한 - 이 사랑의 고리가 되어 연쇄반응을 일으켜 그분들에게 人間品位의 條件, 즉 깨끗한 環境을 提供해주었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가을에는 보다 풍요한, 정신적으로 餘裕를 갖는 그런 계절이 우리 온 국민에게 다가왔으면 한다.

한마리의 까치에도 愛情을 갖는, 한줌의 흙, 한포기의 풀에도 눈돌릴줄 아는 餘裕를 되살렸으면 한다.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先行도 즉시 결실을 맺을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 보답을 우리에게 되돌려 줄 것이다.

우리 다같이 황량하고 쓸쓸한 가을이 아닌 한 점 붉은 감이 가을 하늘을 수놓는 그런 청자빛 하늘을 기대해 보자.

가치의 울음소리처럼 해맑은. *

